

2018년 2월 23일

csf@kiep.go.kr

징진지(京津冀) 지역, 2018년 송안신구(雄安新区) 건설 중점 추진



- 징진지¹⁾ 지역의 각 지방정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²⁾ 에서 공통적으로 송안신구³⁾ 건설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 밝힘.
 - 2017년 4월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송안신구 설립을 결정하였고, 2018년 징진지 지역의 지방정부가 구체화된 계획을 발표한 것임.
 - 송안신구가 입지해 있는 허베이에서는 2018년 송안신구의 건설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건설 초기인 만큼 교통, 환경 인프라 구축과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베이징은 2017년 8월 허베이와 체결한 「허베이 송안신구 기획 건설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협의」를 바탕으로 송안신구 건설 전반을 지원할 계획임.
 - 베이징은 지난해 발표된 「베이징 도시 총 계획(北京城市总体规划)」에서도 송안신구 건설 지원에 관한 별도의 절(節)을 마련하는 등 송안신구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⁴⁾.
 - 텐진은 송안신구와 징진지 지역을 잇는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과 환경분야 협력을 추진할 방침임.

1)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을 의미함.

2) 각 지역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는 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발표되는 주요 문건으로 정부의 지난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당해의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

3) 송안신구는 중국의 국가급 신구(新区)로 2017년 4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함.

*국가급 신구: 1992년 이후부터 경제 발전 및 개혁을 위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설립한 종합적인 기능구역으로, 국무원의 비준으로 설립되며 중국 내 19개의 국가급 신구가 있음(百度).

4) 北京商报(2017.8.22), 「雄安新区建设首次纳入北京总规」.

표 1. 2018년 징진지 지역의 송안신구 건설 추진 계획

지역	주요 내용
허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안신구 건설 기획 마련 및 추진 - [교통 인프라] 베이징 신공항과 텐진항(天津港)·황화항(黄骅港),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 [프로젝트] 베이징과 송안신구 간 고속도로인 징송(京雄)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조림·녹화(造林绿化)사업을 비롯해 바이양덴(白洋淀) 담수호 등 환경 종합개선 프로젝트 실시 - [제도] 부동산, 호적(户籍), 인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인재 적극 유치, 제도적으로 장기적인 자금 조달체제를 구축 - 베이징의 수도 비핵심 기능 승계와 함께 첨단산업을 유치, 학교병원 등 공공 서비스 자원의 이전 추진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안신구의 건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 - 허베이와 체결한 「허베이 송안신구 기획 건설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협의(关于共同推进河北雄安新区规划建设战略合作协议)」를 바탕으로 학교·병원 관련 프로젝트와 송안신구 내 중관촌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 * '협의'에서는 송안신구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과학기술혁신 △교통 △환경 △산업 △공공서비스 △규획 △인재 교류 등 8개 분야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텐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안신구와 베이징, 텐진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 - 생태환경(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방지 협력 강화

자료 : 각 지역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

□ 송안신구는 중국의 수도권 발전 계획인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⁵⁾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음.

-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은 베이징의 '비(非)핵심적인 수도 기능(非首都功能)⁶⁾ 조정을 통한 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함⁷⁾.
 - 비핵심적인 수도 기능을 텐진과 허베이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베이징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자원도 이전 추진(연구기관·기업 간 기술 협력 및 이전, 과학연구기관 설립 등)
- 송안신구는 베이징의 비핵심 기능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자원이 집중적으로 이전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계획임.
 - 세 지역이 공동 제정한 「징진지 산업이전·승계 중점 플랫폼 건설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송안신구에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앙의 일부 행정사업기관, 본부기업(总部企业), 금융기관,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원을 이전할 것이라 명시⁸⁾
 - 건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기관, 기술연구원, IT·환경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입주하였음⁹⁾.

5) 2014년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된 후,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 회의에서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6) 2014년 중앙정부가 수도 베이징의 핵심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으로 제시한 이후, 베이징시는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행정기능, 공공서비스, 산업(제조업 위주) 등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산 및 이전을 추진
 7)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2017), KIEP.
 8) 北京商报(2017.8.22.), 「雄安新区建设首次纳入北京总规」.
 9) 每日财经网(2017.12.14.), 「雄安新区企业搬迁名单一览: 48家企业已落户」.

표 2. 숭안신구 건설 개요 및 현황

<p>위치</p>	<p>- 허베이성 바오딩시(保定市) 내 3개 현(县) ○ 송(雄), 룡청(容城), 안신(安新)현</p>	
<p>목표*</p>	<p>- 수도 비핵심 기능 집중 이전 지역 -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p>	
<p>경과</p>	<p>(2017.04) 설립 (2017.04) 초기 개발구역(30km²) 발전 계획 수립 시작 (2017.06) 중국공산당 허베이 숭안신구 업무 위원회, 허베이 숭안신구 관리위원회 설립 (2017.07) 중국 숭안 건설투자 그룹 유한공사 설립 (2017.10)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에서 「허베이 숭안신구 계획 건설에 대한 의견」 발표 (2018. 01) 허베이성 정부 「숭안신구 계획 건설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p>	
<p>기업 입주현황</p>	<p>- 금융서비스 기관, 기술연구원, IT·환경 관련 주요 기업 입주(2017년 10월 기준 총 48개 기업) ○ 48개 기업 중 IT 분야 14개, 금융서비스 기관 15개, 첨단기술연구원 7개, 환경기업 5개 입주 ○ 중국 4대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모두 분행 설립 ○ 중국의 3대 IT 기업인 BAT 또한 모두 입주하였고, 숭안신구 관리위원회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 알리바바는 숭안신구의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바이두는 오픈소스 자율 주행 플랫폼인 아폴로(Apollo)를 숭안신구 스마트시티 건설에 접목할 방침이며 텐센트는 핀테크와 의료영역의 협력을 추진</p>	

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제시한 숭안신구의 7개 중점임무에 따라 현재 종합적인 건설 계획이 제정되고 있음(7개 중점임무: 친환경(녹색) 스마트시티 건설, 생태도시 건설, 첨단산업 발전,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체제개혁 추진, 대외개방 확대).
자료: 新华社(2017.04.01), 「中央设立河北雄安新区 与深圳特区浦东新区同级别」; 新浪新闻(2017.04.01), 「揭秘河北雄安新区崛起的秘密! 你想知道的都在这里」; 每日财经网(2017.12.14), 「雄安新区企业搬迁名单一览: 48家企业已落户」; 今晚网-渤海早报(天津)(2015.03.24), 「《协同发展规划纲要》近期有望公布- 京津冀如何“齐步走”(图)」(그림자료); 百度百科 등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2018년 징진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숭안신구 건설을 통해 중국의 수도권 균형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평가됨.
 - 숭안신구가 베이징과 톈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허베이에 조성되어 세 지역 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숭안신구 초기 개발에 투자되는 금액만 5,000억 위안(약 8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¹⁰⁾, 베이징과 톈진의 우수한 과학기술 혁신자원이 유입되고 있어 허베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10) 证券日报(2017.5.4), 「雄安新区初期建设投资或达5000亿元 PPP成招商引资重要工具」

- 또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중국의 3대 IT 기업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첨단 기술력이 응집된 중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8년에는 숭안신구와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石家莊), 베이징, 톈진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 톈진, 스자좡과 숭안신구 간 30분 교통권을 구축할 방침임¹¹⁾ CSF

(작성자 : KIEP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김주혜 연구원)

11) 腾讯网(2017.4.18),「解读河北雄安新区: 快捷高效 打造绿色交通体系」.